

第216回国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0年12月18日(月)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계속)
-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계속)
- 3.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계속)
-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審査된案件

-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1
-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1
- 3.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창달·이규택·이재오·조정무·현승일 의원 발의)(계속) 1
-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부영 의원 대표발의)(조부영·강창희·김종필·김종호·김학원·송광호·오장섭·이양희·이완구·이재선·이한동·안대륜·원철희·정우택·정진석·조희욱·함석재·강숙자·김용환·한승수 의원 발의)(계속) 1

(15시57분 개의)

(15시59분)

○委員長 李揆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金聲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黃祐呂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趙富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의료원간호대학4년제대학개편에관한청원, 사립학교법개정에관한청원, 서남대학교이전반대등에관한청원, 국립대학기능직공무원감축방안제검토에관한청원 이상 4건의 청원은 법안과도 관계가 있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3.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창달·이규택·이재오·조정무·현승일 의원 발의)(계속)
- 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부영 의원 대표발의)(조부영·강창희·김종필·김종호·김학원·송광호·오장섭·이양희·이완구·이재선·이한동·안대륜·원철희·정우택·정진석·조희욱·함석재·강숙자·김용환·한승수 의원 발의)(계속)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되 소위원회가 수정한 제70조의3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在禎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예.

○李在禎委員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꽤 긴 시간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원정년에 관한 이 문제는 소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한 쪽에 있었고 또 한 쪽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간에 정책협의회 같은 데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그곳에서 어떤 원칙을 정할 때까지 소위원회의 결정을 유보해 두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했었습니다만 결국 소위원회가 마지막에 가서 6명 재적 가운데 재적이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의도 하지 못한 채 소위원회 보고를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올려진 이 두 가지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양당의 정책협의회, 특별히 자민련의 안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자민련과의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차원 높은 정책적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는 이 안전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점에서

토론을 유보하고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揆澤 金貞淑 위원 말씀하세요.

○金貞淑委員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소위원회로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양당간 3대 3으로 숫자가 동일해서 입장의 차이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못했는데 우리 당에서 이것을 생각한 것은 지난 2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한 것입니다. 또 자민련에서 63세로 낸 것도 자민련 나름대로 여러 날 동안 연구를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원의 자부심과 명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런 중요한 교원정책을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부터 좀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십니까? 2년 전에 단축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정년단축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때 왜 단축을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서너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어느 한 가지도 성공을 못 거두고 교육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연구에 연구를 하셨어야지, “이제부터 정책조율을 해보자. 각 당에서 차원높게 정책협의회에 넘긴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전이 상정이 된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대체토론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도 몇 번 더 이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거 2년 전에도 몇 달을 끌다가 결국은 표결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끌 수가 없기 때문에 표결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여론수렴을 한 끝에 해결방안이 없을 때에는 다수로 정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도 기왕에 상정이 됐으

니까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일 또 상정을 해서 하고, 또 다음 회의에서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토론을 하고 그 사이에 여당에서는 빨리 정책조율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과 자민련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정중하게 토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향간에 특히 교육계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정년환원을 원해서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본 것이다. 내심으로는 거기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퍼트리고 다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조정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그냥 허술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체토론을 진행시켜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朴昌達委員** 방금 존경하는 李在禎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의사일정 3항, 4항은 소위에서 다루기가 너무나 힘든 사항이고 또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교육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오늘은 두 개의 항을 가결시키고 3항, 4항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을 하고 다음에 토론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야 간사의 협의를 존중해서 오늘은 토론하지 말고 다음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고, 또 자민련의 趙富英 위원께서도 내놓으셨으니까 정말 상임위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다음에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金貞淑委員** 오늘 토론을 안 하기로 간사간에 합의를 하셨다고 안건으로만 상정하고 토론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李揆澤** 간사간에 토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없고……

○**金貞淑委員** 그러면 토론하십시오. 토론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간사간에 합의를 해서 못 하시겠다고 여당 위원님들이 일어나서 나가시겠다고 그러면 한 가지 약속 하실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교육상임위가 열릴 때에는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짓는 것으로 오늘 아예 시한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 특히 교육집단에서 볼 때 완전히

정치권에서 교사문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짜고 치는 뒤통수 여기에 상정만 해놓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오늘 대체토론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표결하자는 얘기는 위원장 마음이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토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여당은 빨리 정책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회의를 통해서 하시되,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金花中委員** 저는 대체토론을 안 하는 것으로 黃祐呂 간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5년 전, 3년 전에 교원정년이 60세가 좋으나 62세가 좋으나 63세가 좋으나 65세가 좋으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토론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대체토론을 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철학이면서 정치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토론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간의 합의로 대체토론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黃祐呂 간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金貞淑委員** 아니, 교원정책을 정하는데 개인의 철학이 여기에 왜 들어 갑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원정책이 100% 잘못됐다는 것을 저한테 또 되풀이 시킬 것입니까? 백일하에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교육정책은 더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구하자는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개인의 소신이 여기에 왜 들어 갑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상정된 것이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좋은 안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2세를 못 고치겠다고 하면 왜 못 고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63세로 낸 사람은 왜 63세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65세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도 아닌데 교원정년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컨센서

스를 이루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면 손을 들 것입니다.

○**任鍾皙委員** 새천년민주당의 任鍾皙입니다.

오늘 교육공무원법중개정안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정년을 65세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玄勝一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면이 참 많다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양당에서 세 분씩해서 여섯 분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하셨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도 여야간에 좀더 고도의 정책협약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실제로 여야간에 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만 결정할 수 없었다.” 하는 얘기는 교육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金貞淑 위원님을 비롯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그것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정책협약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그 추이를 보면서 다음 기회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趙富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3세안은 지금 趙富英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黃祐呂委員** 간사간의 협의내용은 대개 공개해서 얘기하지 않는 법인데 오늘 이말 저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재부의하자는 입장과 이제 그것은 무익하다는 입장이 대립이 돼서 여야간에 오랜시간 진행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고 특히 교육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소위원회에 보냈다가 다시 또 상임위에 가져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서 여야간에 최소한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趙富英 위원님이나 양당도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체토론은 당의 입장을 좀더

정리하고 또 각자도 자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드리면서 또 조만간에 상임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진전이 진행되고 있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金貞淑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도 좋고 또 여당 위원님들 말씀처럼 좀더 당내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시 정돈하자 하는 말씀도 좋습니다.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옳지만 제 개인적인 또 간사로서의 입장은 이렇게 여야가 모처럼 한 발씩 진전이 됐으니까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립보다는 중립적인 또 교육을 위하는 이러한 모습을 국민앞에 보이는 것이 모양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당의 黃祐呂 간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黃祐呂 의원님이 대표발의자인데 방금 말씀 중에 양당간에 연구를 더하고 자당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 안 하고 이것을 내셨습니까? 몇 년동안 연구해서 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 당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당은 지금 당장 표결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준비가 안됐다고 자꾸 토론을 연기하시는데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안 되고 다음 회의 때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시라. 이렇게 약속하고 오늘 토론을 연기하려면 연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양당의 입장이 갈려 있는데 협조는 무슨 협조입니까?

○**委員長 李揆澤**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대체토론을 나중에 미루자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趙富英 의원님과 黃祐呂 의원님의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한 1월 중순쯤이라도 공청회를 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黃祐呂委員** 지금 우리가 공청회니 뭐니해서 지연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고

또 지금 趙富英 위원님이 대체토론에 참가하시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양당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조만간에 있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에 의의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소위에 보내거나 이렇게 지체하고 지연하는 것을 우리 양당간에 하지 않는다 하는 중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밖의 것은 아직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田溶鶴委員 지금 黃祐呂 위원님이나 朴昌達 위원님께서 내신 동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현명하신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소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는 토론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 결론을 내리기에선 사안 자체는 지나치게 단순하면서 교육정책에 미치는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金貞淑 위원님께서도 민주당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측도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현재 안건도 두건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 교원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다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아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오늘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해주시고 오늘같이 좋은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정치불신을 조그마한 걸음에서부터 해소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셔서 오늘 회의를 생산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昌達委員 지금 제 심정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존경하는 薛勳 위원께서 “이것을 상정하게 되면 틀림없이 한나라당에서 기습통과를 시킬 것이다. 분명히 날치기 통과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절대 날치기 안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두 분만 오시면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비춰지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날치기 통과 안

합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민들과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항, 4항은 절대 소위에서는 심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임위에서 우리가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상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德圭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입법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한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띤 그런 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 국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겠다 해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무한정 토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소위원회 제도를 두게 됐고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도 상설화시키고 있는 이유도 전문성을 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정된 2개 법안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못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돌려 보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는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가 또 논의를 못하면 본회의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금방 朴昌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토론해서 안 되면 정책협의회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안 되면 정책협의회가 소위원회로 넘겨라 하기 전에 다시 우리 위원회 결의로 소위원회에서 더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의 법안 중에 작년에 趙富英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도 지금 趙 위원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앞으로 같이 토론을 벌이는데 있어서 간사간에 협의하는 절차가 있고 또 정책협의회에 넘기자고 하는 것도 여기서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다음에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물론 金貞淑 위원께서는 아까 田溶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정열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식견도 가지고 계시

고 그 충정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당으로서는 소화하기가 조금 거북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논의하고 싶은 충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문제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토론을 이상 생략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아서 소집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金貞淑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겠어요.

○**委員長 李揆澤** 金貞淑 위원 말씀하세요.

○**金貞淑委員**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제가 지어 냅니까? 자꾸 귀당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아직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책협의회로 넘길 것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은 나와 있지요. 더 이상 토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62세 고수, 한나라당은 65세, 자민련은 63세, 법안을 장난으로 냅니까? 법안 내기 전까지 충분히 연구에 연구를 하고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교육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죽어버린 것이예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온 얘기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자존심이라도 건져줄 것인가 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불리얼시킨 것이지 교육계에 혼돈 주고한 것 압니다. 부작용 굉장히 크고 여파가 심해요. 고민고민하다가 우리가 낸 것이예요. 왜냐? 교사들이 주인공인데 우선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교사들에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월급을 올려주느냐, 월급 가지고 절대 이것 해결 안 된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 제가 안 했습니다. 대개 귀당의 위원님들께서 자꾸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이제부터 연구하는 것으로, 또 정책협의회에 양당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보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귀당의 입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李在禎委員**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맙시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빨리 토론에 임하시라고요.

○**李在禎委員** 그만하고 산회합시다.

○**金貞淑委員** 저는 그것 때문에 발언한 것 아닙니다.

교육부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고 한 것인데 수능시험 쉽게 냈다고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만점 짜리가 많아서 변별력이 없어서 애들 못 뽑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에 5개 문제가 홀·짝으로 해서 난이도에 차이가 나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을 때 자문을 서로간에 해주고 우리 의견을 발표해 주어야 돼요.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틀리는데 그것 설명해 보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李鍾瑞** 고등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능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홀수형, 짝수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문항은 양 유형에 있어서 답지의 배열을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짝형의 답지배열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른 것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답을 형성할 때 그 위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에 예를 들어 ㄱ은 사과, ㄴ은 배, ㄷ은 감 이렇게 있으면 답지는 1번 ㄱㄴ, 2번 ㄴㄷ, 3번 ㄱ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배열을 바꾸어 가지고 홀수형, 짝수형을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답지의 배열을 바꾸어 가지고 홀수형, 짝수형을 바꿀 것인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위원들의 판단은 이 답지에서 ㄱㄴ, ㄴㄷ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1번에 ㄷㄱ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답지의 순서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보기의 배열을 바꾸는 것이 출제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배열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아침에 보도를 보면 종로학원이다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는데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금년에는 방법을 바꾸었어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李鍾瑞** 아닙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난이도에 이상이 있다고 문

제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李鍾瑞 예, 문제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 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두 군데 통화를 해보았어요. 이것이 난이도가 틀리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무마합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원장께서 5개 문안에 관한 조사를 끝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난이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金貞淑委員 평가원장이야 자기가 총지휘를 했으니까 자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나와 있고요.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李鍾瑞 정답을 고르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金貞淑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도 100%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教育部高等教育支援局長 李鍾瑞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차관님, 결론적으로 입학시험, 선발권을 대학에다 맡겨버리세요. 왜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맡겨버리세요. 이것 안 맡기다가는 교육대란 일어납니다. 금년은 괜찮아요. 내년 2002년 입시 끝나고 나면 난리나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빨리 넘겨버리세요. 넘겨야 돼요. 선발권, 대학에다 대학 나름대로 다 자율권 주어야 돼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연구검토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속 길게 시간을 잡으시는데 2월까지 가면 큰 일 나요. 내일이라도 결론 지어서 안 될 때에는 표결로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2월까지 가면 내년 정년퇴직할 사람들 이삼 월에 결정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며칠 내에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정년 단축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도 정부가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다 보완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2년 동안 교육은 점점 내려가고 안 되었기 때문에 연구

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런 결론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더 이상 길게 시간 끌 일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에는 위원장님 직권으로라도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때문에 내일 우리 상임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간에 내일 만약에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하고 같이 토론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내일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金相權 교육부차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고해 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뜻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를 개의해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出席委員(12人)

權 哲 賢	金 敬 天	金 德 圭	金 貞 淑
金 花 中	朴 昌 達	李 揆 澤	李 在 禎
任 鍾 哲	田 溶 鶴	玄 勝 一	黃 祐 呂

○請暇委員(1人)

薛 勳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입 법 심 의 관	鄭 順 泳

○政府側參席者

교	육	부			
차		관	金	相	權
기	획	관	李	基	雨
학	교	정	金	朝	寧
평	생	교	車	炫	直
고	등	교	李	鍾	端
교	육	자	金	王	福
국	제	교	朴	景	載
장	국	원	金	正	基
장	회	사	金	麗	壽
장	총	장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名	補任委員名	交渉團體
權哲賢	環境勞動	教 育	한나라당
金武星	教 育	環境勞動	한나라당

(12월1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名	補任委員名	交渉團體
任鍾皙	教 育	法制司法	새천년민주당
千正培	法制司法	教 育	새천년민주당
任鍾皙	法制司法	教 育	새천년민주당
千正培	教 育	法制司法	새천년민주당

(12월14일자)